

지역 매아리

완주 책공방, 책학교 운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내 위치한 책공방북아트센터(관장 김진섭)가 책학교를 운영,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완주군은 책공방북아트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6차시에 걸쳐 '지역출판, 기록(아카이브)가 책이다'라는 주제로 제3기 책학교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책공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학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출판문화의 역량을 낮춰 지역 청년들에게 읽고 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책이 만들어지는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활용한 지역 출판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책학교는 전북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일까지 책공방북아트센터(070-8915-8126~8127)로 접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백구면 맞춤형복지 체계 구축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맞춤형복지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복지인력 및 차량을 확보하는 등 복지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나섰다.

2일 백구면에 따르면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우선으로 지역의 이장·부녀회 등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수시로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유기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민·관 노력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사례관리를 통하여 상담, 욕구 파악, 사례회의,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등의 단계를 거쳐 각각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구분관, 가정의 달 행사 풍성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은 가정의 달(매년 5월)을 맞아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의 의미를 인식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일 도서관에 따르면 주요 가정의 달 행사로는 오는 9일에 책이랑 요리랑 가족사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릴라 / 앤서니 브라운 글' 책을 읽고 마관을 만들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10일에는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5월에 즐기는 인형극과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일, 16일, 23일에는 수요 가족영화의 날로 '베리다와 마법의 숲', '빅 히어로', '인크레더블' 영화 3편을 상영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문해교육사업 탄력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선정

김제시가 비문해학습자에게 기초문해교육 등 제2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2018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인문해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해교육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김제시에 따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기초적 학습권리를 부여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해교육을 통해 소통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 기관(여성회관, 길보른은빛초교, 김제사회복지관)에서 6개반이 운영되며 초등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수준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한글사랑방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 함께 문해 학습자들의 선택의 폭이 한 층 더 넓어져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추진하는 김제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기관 프로그램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탈피, 더 많은 학습자를 확보하고 질 높은 문해교육제공을 위하여 학습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한글교육과 함께 관공서·은행·우체국 이용하기, 가족에게 편지쓰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문해중심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내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문해교육의 달' 행사와 전북권 성인문해기관과 함께하는 '성인문해시화전', 한글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문해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안전자치 책임지는 튼튼문해교실' 특성과 문해사업에도 선정되어 한글교육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2018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정체성 교육의 상생 수레바퀴 굴리다

김제시-교육지원청, 박물관 지역사회 교육 협업 구축

김제시(시장 권한대행 이우천)와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순)은 지난 달 30일, 김제시청 2층 상환실에서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교육 주제(학생·학부모·교원) 정립 및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박물관 지역사회 교육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박물관 지역사회교육 협업체계 구축'은 박물관·지역사회교육 협업체체가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김제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고, 김제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역사회교육사업으로 수용하여 유·초·중·고 사업 및 학부모·교원사업으로 연계하는 협업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

청이 지역 정체성 교육이라는 공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업의 틀을 마련하고 실행 구조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제시가 제안한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안은 박물관단지 내 4개 박물관 및 이리랑문화마을 전시관람 및 학습지 활동, 김제교육지원청 교원 교육 및 연수, 박물관과 함께 만드는 지역교과서, 김제 마을교육 만들기(학생·학부모·교원이 주체가 되는 우리동네 이야기), 자유학기(학년)제 및 진로체험(박물관 학교 지정, 학교가 만드는 전시) 등이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이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협의

창출한다.

김제시는 박물관 지역사회교육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첫째, 김제 정체성에 바탕을 둔 김제 교양인 육성, 둘째, 사적 박물관 및 오찬년 농경문화, 김제 정체성의 지역 외 선양, 셋째, 김제 정체성 콘텐츠에 접목해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성장할 지역 너머의 미래고객 육성을 목표로 하며, 김제 정체성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후전 시장 권한대행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와 김제교육지원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생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협업체계구축이 지역사회 내외부에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양교육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월 1회씩 20명이내의 소그룹을 지어 영양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내용으로는 식품으로 꼭 섭취해야 할 5대 영양소 바로알기, 올바른 손씻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찾기, 보건소 내 연계사업(출산준비교실 및 금연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다.

김제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영양문제 해소와 식행동 및 식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고산미소시장 광장에서 '고산味噌한우 숯불구이축제'를 개최한다.

"품질 좋은 고산味噌한우, 마음껏 즐기자"

4~7일까지 고산미소시장서 '숯불구이축제'

완주에서 고산미소한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영만)와 완주한우협동조합(이사장 조영호)은 가정의 달을 맞아 '힘내자 우리가족'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고산미소시장 광장에서 '고산味噌한우 숯불구이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산味噌한우 숯불구이축제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 축제마다 2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찾는 등 지역의 유명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한우쿠기쇼, 시사회, 경품추첨 및 한우경매이벤트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와 각종할인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를 진행하게 될 조영호 완

주한우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지역축제로 자리잡아가는 고산味噌한우 숯불구이축제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즐거운 한마당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 부지장은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우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한우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가 부담 없이 한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 한우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완주군 196명의 한우생산농가가 직거래로 한우를 판매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에 품질 좋은 한우를 공급하고자 설립한 단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뚝은감 냉해피해 대책 나서

농업기술센터서 간담회

완주군이 이상저온 현상으로 발생한 뚝은감 냉해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상저온 현상으로 발생한 뚝은감 냉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고재욱 부군수를 비롯해 상주감연구소장, 산림청 재해담당자 및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등 전문가와 뚝은감 재배농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로 초청된 상주감연구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나무 생육관리 및 병해충 예방방법과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감나무 관리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농가는 "피해가 심각하고,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결실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돼 우려스럽다"며 2차 피해 예방 교육과 냉해피해 지원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고재욱 부군수는 "지속적인 농가 전문교육과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번엔 발생한 냉해 피해 대책을 위해 전라북도도와 협의해 산림청에 지원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찬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860
www.ganganwine.com